

한국지엠·시장·임원·업체, 몽땅 불법파견 범죄 처벌

인천지법, 카허 카셈 전 사장 징역형 선고... 지회, 대법원 불법파견 직접고용 판결 촉구

카허 카셈 한국지엠 전 사장과 임원, 법인, 업체 사장들이 몽땅 불법파견 유죄 판결을 받아 범죄자가 됐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2008년 불법파견 범죄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한 지 5년 만에 나온 늦은 판결이다.

인천지방법원은 1월 9일 카허 카셈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임원들 벌금 700만 원, 한국지엠 법인 벌금 300만 원, 협력업체 사장들 벌금 200~300만 원 등의 형사처벌 판결을 내렸다.

지회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2016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와 노조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라면서 “사법부와 정부가 범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아 자본이 범죄를 반복한다” 라고 규탄했다. 니 라이 리 전 사장은 2013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민사소송은 8년째 진행 중이다.

지회는 “한국지엠은 대법원에 직접생산공정 1차 하청노동자를 발탁 채용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며 불법파



견 고용의제·의무 최종 판결을 늦추려 한다” 라며 “정부가 불법파견 판정한 1,719명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한국지엠 불법파견 범죄 진정성 있는 사과, 노조 활동 부당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하고 있다.

배달호가 유취안 동지에게

유취안 동지.

나의 영정을 보고 투쟁을 다짐하지 마세요. 동지가 살고 있는 오늘을 내가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작은 항상 오늘의 시작일뿐입니다. 현장에서, 거리에서, 일상에서, 나의 시간 안에서 버티고 버틸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저항. 숨 막히는 염천 쇠 감옥에서 버틴 동지처럼 저도 어디선가 버티겠습니다.

2003년 1월 9일 멀리 떠난 배달호가 유취안 동지에게.



조선하청 블라스팅 노동자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불법 물량팀 폐지·4대 보험 가입 요구 작업거부 29일, 해고 26일째 ... “원청이 결국 해결해야”

불법 물량팀 폐지, 4대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며 29일째 작업거부 중인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물량팀 블라스팅(샌딩) 노동자들이 현대삼호중공업 정문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업체들은 지난 12월 15일 38명을 집단해고하고 손해배상 청구 협박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블라스팅 노동자 등은 1월 9일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 정문 앞에서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블라스팅 노동자 집단해고, 불법 물량팀 해결 촉구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2월 24일 하청업체 세 곳과 개별협상을 시작해 12월 25일 업체가 제시한 임금안을 수용하고 전원 복귀 의사를 밝혔다” 라면서 “아직 집단해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은 불법 물량팀을 유지하려는 원청 현대삼호중공업 경영방침 때문이다” 라고 규탄했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기존 물량팀 급여보다 적은 사측 임금을 받아들였지만, 사측은 전원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원청과 업체들은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투입하고 울산에서 데려온 일당 40~59만 원의



일당제 노동자, 정규직을 투입했다. 지부는 “대체인력이 기존 작업물량의 60% 정도 처리하지만, 이런 생산 방식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밝혔다.

지부는 “원청과 업체들은 블라스팅 노동자 등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의 싹을 자르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탄압하고 있다” 라며 “원청 현대삼호중공업이 결국 해결해야 할 문제다” 라고 지적했다.

지부와 현대삼호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블라스팅 투쟁 승리 현장공동실천단’을 구성해 본격 현장 활

동에 나선다. 현장공동실천단은 하청노동자 노조 가입, 블라스팅 노동자 생계·투쟁기금 마련 재정사업, 선전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장공동실천단은 현대삼호중공업과 모기업 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한 규탄 투쟁과 사회 연대를 확대한다. 시민선전전, 고용노동부 면담, 전남도의회 의장 면담, 대형조선소 순회 투쟁, 국회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다. 1월 18일 오후 현대삼호중공업 정문에서 ‘금속노조 호남권·조선소 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